전방후원형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기념물 지정예고

앞은 네모형 뒷쪽은 원형 독특…전북 유일 확인 마한~백제시대 고분
가장 이른 시기 축조 한반도 최북단 최대 밀집…역사 중요 자료 평가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이 지난 12일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 지정유산인 기념물로 지정예고됐다.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고분이다.

앞쪽은 네모난 방형이고 뒤쪽은 동그란 원형의 무덤 형태가 결합한 독특한 무덤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우리나라 서남부지역(영산강 유역)에 주로 분포하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고분이다.

한반도 전방후원형 고분(총 12개 유적 15기 정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됐고, 최북단에 자리하면서 3기 정도가 조성되어 최대 밀집도를 보인다.

특히 수혈식(竪穴式) 돌방무덤 형태 등 영산강 유역과도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과 출현 시기 및 축조 집단의 성격 등 마한~백제문화 연구와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2000년 고창의 분구묘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후, 규모와 구조는 고분 측량조사(2010년)와 노출된 매장시설 및 일부 분구에 대한 학술조사(2015년)를 통해 밝혀졌다.

1호분의 규모는 전체 길이 56m, 원부 직경 32.8m, 원부 높이 6.6m, 방부 너비 34.9m, 방부 높이 4.6m 정도로, 세 번째 크기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그릇받침과 뚜껑토기, 철낫 및 마구(馬具) 부속품인 말띠꾸미개, 금박유리제 등 약 60여점의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올해 고창 마한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용역과 마한역사문화권 중요유적(봉덕리 3호분) 발굴조사 등의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사적) 등과 함께 마한·백제문화의 특징과 당시 대외관계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며 "그동안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보존·활용 방안 등을 더욱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칠암리 고분 항공사진. 〈고창군 제공〉

정읍시, 낙농 도우미 지원 노동 공백 메꾼다

착유·사료 급여·우사 청소 등
농가 자부담 50%…2인 1조 운영

정읍시가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7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농 도우미(일명 헬퍼·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하루 2회 이상 착유해야 하는 젖소의 특성 때문에 연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에 명절, 경조사 기간 등 도움이 필요한 때 대체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낙농 도우미 요원은 낙농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낙농업 종사경력이 있는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착유, 사료 급여, 우사 청소, 분만·치료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정읍시 낙우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낙농 도우미가 필요할 때 단체에 신청하면 자부담 50%로 도우미 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85 농가에 2인 1조 2개 팀이 지원하고 있어 노동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중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 사업으로 낙농가의 사육의지를 고취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낙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착공

하수처리 능력 1050t 확대 대산천 오염 방지…2026년 완공

고창군이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깨끗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과 대산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62억원(국비 41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700t에서 105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2년여간 공사기간을 마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창군은 그동안 인근 마을의 반대의견에 수차례 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를 끌어냈다.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류성용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고질적 악성 체납자 일제정리

남원시가 5월 말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고질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남원시는 생계형 체납자(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등)를 대상으로는 복지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부서로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실익 없는 압류자산을 정비하고 재산 가치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귀농의 모든 것' 귀촌학교에서

24일까지 교육생 모집…65세 이하 30명 합숙형 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귀농귀촌학교는 예비 귀농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 농촌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시설이다.

정읍시의 경우 해마다 1~2회씩 운영하며 현재까지 18기의 기수를 거쳐 총 5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하 예비 귀농귀촌인 또는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총 3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거나 시 농업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5월16~30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합숙형 교육이며 교육비 중 20만원의 자부담이 있다.

귀농 준비에 필요한 기초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귀농귀촌교육 100시간을 인정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귀농귀촌지원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소개해 이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다"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가족관계등록 안내책자 배부

남원시가 혼인·출생·사망·개명신고 등의 절차를 상세히 소개한 책자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 책자는 시청 민원실과 보건소를 비롯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혼인·출생·사망·개명 신고 처리 후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록해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혼인신고와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지원 서비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사망신고-사망자 재산조회, 재산상속 등 개명신고-주민등록증 및 여권 재발급 절차 등이 소개돼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